

【 해외금융뉴스: 복미 】

미 재무부, 생명보험사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결정

- 미국 재무부는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.
 - 투자형 상품에 대한 보증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주가는 올해 들어 40%이상 하락했으며 지속적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- 현재 은행산업과 자동차 산업만이 부실자산 구제계획(TARP)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으며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생명보험사들도 부실자산 구제계획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.

- 그 동안 생명보험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해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최근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임.
 - 많은 보험사들이 최저보증을 제공하는 변액연금 판매에 주력했기 때문에 주가하락으로 잠재손실이 발생했고 운용자산 중 채권가치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손실을 기록함.

-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는 생명보험사는 연방정부 면허를 획득한 은행을 소유한 보험사들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.
 -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작년부터 은행지주회사를 소유한 생명보험사의 부실자산 구제계획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.
 - 그러나 현재 어떤 보험사가 구제금융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될지에 대해선 확실치 않음.
 - 대표적인 생명보험사인 하트포드(Hartford), 젠워스(Genworth), 링컨내셔널(Lincoln National)등은 이미 부실자산 구제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예금, 대출 업무부문을 인수해오고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, 4/8)